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봄호|

2024년
통권 제39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시민 곁으로 한발 더,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



제87회 임사회 개회사

SEJONGCITYCOUNCIL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올해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활짝 열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소통의 출발
은 경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활동에 매
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 합의에 따라 본궤도에 오른 ‘충청지방정부연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가 지난해 10월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을 받은 이후 목욕탕 사고로 안타깝게 세 분이 돌아가시고,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관계기관 관할 여하를 떠나 사전에 협업하여 ‘무늬만 국제안전도시’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율 역시 2022년 기준 1,074건으로 2021년 436건 대비 146.3%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중이지만 교육시설 등의 어린이 안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에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7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근본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4	제87회 임시회 개회사	56	5분 자유 발언
8	의정포커스	64	시정질문
12	결의안	66	주요언론보도
18	주요안건 처리현황	68	사무처 돋보기
26	의회교실 소감문 수상작	70	의정 주요 뉴스
34	의회인터뷰	75	독자투고
	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귀 기울여야... 김영현	77	입법정보
	Ⅱ “기본에 충실한 시의원 될 것” 김재형	Ⅰ 생활법령	
	Ⅲ 소성취대(小聲取大)의 정치를 꿈꾸다 김현미	Ⅱ 주요입법동향	
46	상임위원회 소식	Ⅲ 법령해석사례	
	의회운영위원회	Ⅳ 최근시행법령	
	행정복지위원회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산업건설위원회	91	의회홍보채널 안내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지 이야기

숨죽인 시간이 끝나고 피어나는 계절이 당도했다. 봄은 감각을 일깨우는 계절이다. 만개하여 흐드러진 벚꽃을 보고, 그들이 몰고 오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은은하게 내려앉는 햇빛으로 얼굴이 따뜻해지는 나날들. 아지랑이 속에서 봄 공기를 마시면 마치 달콤한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잠들었던 몸의 감각을 깨우는 봄처럼, 세종시의회도 시민들이 볼 수 있을, 들을 수 있을, 피부로 느껴질 의정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삶의 공기를 '단 것'으로 바꿔줄 발걸음, 세종시의회의 2024년 첫 여정을 열어본다.

2024 통권 제39호

발행일 2024년 3월 19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이순열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Focus
1



66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폐회... 2023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라면서, “지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나아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안정적 조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사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처음 도입된 제도인 인사청문회 개최 준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보좌를 위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 대비 2억 2,110만 원 증액해 원안가결하고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어 2023년 11월 15일 ‘2024년 본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한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안신일·여미전·최원석·김학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4년 본예산도 의결했다. 세종시는 2023년도 대비 4.8% 감소(968억 원)한 1조 9,059억 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4.2%(447억 원) 증액한 1조 1,062억 원 규모의 본예산으로 2024년을 이끌 전망이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세종 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및 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Focus
2

66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 개회로 새해 첫 공식 회기 시작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 1월 24일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활짝 열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면서 “소통의 출발은 경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세종지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어진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마지막으로 2월 5일 오전 10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상병헌 의원은 ‘조치원 철로의 지하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 촉구’,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의 쌀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제언’, 김영현 의원은 ‘예산 먹는 용역, 무분별한 추진 자체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5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0건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됨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김효숙 의원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3년 11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년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

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결의안 3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상병헌 의원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년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시 북부권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세종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상병헌 의원은 “교통망 구축은 도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며, “연기 나들목 설치는 연서면 일대 기업 유치,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조치원을 포함하여 북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광역교통망의 접근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세종 북부권 일대에 연기 나들목 설치하는 실질적인 지방 균형·상생발전을 선도할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향후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세종시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급 협의하여 연기 나들목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고자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되었지만,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는 불가해 현 제도가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 5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년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김재형, 최원석(이상 행복위), 이현정, 김영현(이상 산건위), 김효숙(교안위) 의원 5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추후 예방대책 수립 및 피해자 구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는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아울러 시 내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또한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 실패로 인해 향후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제86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1차 본회의

2023. 11. 13.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11.13.~12.15. (33일간)
제2항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김영현 의원 김재형 의원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제4항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제6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제7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		
제9항	세종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제10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2차 본회의

2023. 11. 14.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휴회의 건(2023.11.15.~11.26./12일간)	원안가결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2023. 11. 27.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 회 운 영 위원회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 정 복 지 위원회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	원안가결
	제2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23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운영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동의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86회
정례회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 정 지 위원회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제41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2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7항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8항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9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86회
정례회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50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전기굴절버스) 동의안	원안가결
	제5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3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원안가결
	제54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제55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56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부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 육 안 전 위원회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원안가결
예 산 결 산 특별 위원회	제65항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6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제67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회투자기금, 투자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농업발전기금)	원안가결
	제68항	휴회의 건(11.28.~12.14.)	-

4차 본회의

2023. 12. 15.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제2항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제3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제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수정가결	
제5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6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제7항	20234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87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1차 본회의

2024. 1. 24.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1.24.~2.5. (13일간)
제2항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김충식 의원 김학서 의원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제4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제5항	휴회의 건(2024. 1. 25. ~ 2. 4. / 11일간)	원안가결	

2차 본회의

2024. 2. 5.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운 영 위원회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본회의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행 정 복 지 위원회	제5항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87회
임사회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 정 지 위원회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7회
임시회

소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41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2항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43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교 육 안 전 위원회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63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통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

나는 미래에 영어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직접 세종시를 돌아다니며 교육시설 불평등에 관해 탐구하는 등 교육 기회의 평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나중에 교육자가 되어 더 많은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

그때 좋은 기회로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과 세종시의회를 방청할 기회가 주어졌다.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입법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했었던 나는 이번 기회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더욱 깊게 실제로 보면서 배우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후회 없는 경험을 만들어 오자고 다짐하였다.

실제로 시의회에 가서는 내가 기대하고 배우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의회교실 전에 미리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시설 불평등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시설법'이라는 법률을 조사했었다.

방청을 마친 후에,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셔서 나도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그 저 고등학생이 아닌 우리 사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직접 내 의견을 말해보는 시민이 된 순간이었다. 그때 미리 조사했던 '교육시설법'과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시설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더욱이 문화시설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나마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의회교실에서는 정말 기대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세종시에 관한 정책, 문제점 등의 제안이 있다면 이메일 부탁드리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주셨다. 그때 나는 의원분들께서 우리 세종시의 문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단순히 학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시민 한 명으로서 사회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본회의 영상을 모두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여 내가 제안했던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회의 내용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기대치>를 시청했다.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신도심은 정부청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치원읍은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쇠퇴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22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한 이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세종시의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인구 10만 명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하지만 2014년 10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인구였던 48,181명에서 현재 44,132명으로 10만 명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감소 중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제안 사항은 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조치원읍에 시청사 별관 설치 촉구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등이 있었다.

회의 진행 중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세종시 문제점(농업 등)을 바탕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 정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의회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배우니 더욱 미래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가 눈에 보였다.

또한, 내 주변 친구들 포함하여 청소년 의회교실을 대부분 잘 모르는데, 이 체험의 인식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이를 체험하고 시민으로서 더욱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바람직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회교실에서 배운 정치참여

저번 주 청소년 의회교실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다. 학교에서도 사회시간에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배운 터라 더욱더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다. 정치란 어떤 주제를 거치고 의논하는 것으로 정치참여는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서 '투표'라는 것을 통해 국민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장, 교육감, 시장, 의사입법담당관,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시장의 대답, 교육행정 질문, 교육감의 대답, 토론 주제 발표, 찬·반 토론 연설, 투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래 실제 시의회에서는 2분이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인데 우리는 시간상의 문제로 단축했다고 했다.

나는 의원으로서 시장한테 질문하는 시정질문을 맡았다. 주제는 「상가 공실을 활용한 청소년 커뮤니티 설치」였는데 나의 근거는 상가 공실이 물가가 올라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청소년의 체육활동, 진로 탐색과 더불어 시간 상 문제로 방과 후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의견은 시장 역할을 한 친구에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상가 공실의 주인은 시가 아닌 개인의 소유이므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두 번째는 만약 청소년 커뮤니티를 설치할 경우, 주변에 스터디카페나 학원 등 집중해야 하는 시설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설을 피해 설치하면 될 것 같긴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의견이 같을 순 없으니, 수용하긴 했다. 또 첫 번째 의견은 맞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조사해서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그중에서 토론 주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차도 쪽에 있어서 학원 차에 학생이 내릴 때 치일 수 있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 바꾸기」가 주제였다. 그 주제로 토론했는데 반대쪽 의견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바꿀 때 공사 비용이 낭비되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찬성 쪽 의견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해 바꾸어야 하고, 자전거는 쉽게 멈출 수 없는데, 사람은 자전거보다 빠르게 멈출 수 있어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많은 친구의 찬·반 의견을 듣고, 나는 투표에서 찬성을 택했다. 그 이유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바꾸면, 해결될 것 같기 때문이다.

투표가 다 끝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었다. 의장을 제외한 19명 중 찬성 11표, 반대 8표로 가결되어서 너무 기뻐다. 물론 진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쪽의 의견이 더 많아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관련된 퀴즈를 진행했는데 질문은 총 다섯 개로 정답자는 카카오프렌즈 공책을 얻었다. 그 질문은 '세종시 시의원은 모두 몇 명일까요?', '시의원 임기는 몇 년일까요?', '회의를 진행할 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등이었다. 답은 차례로 20명, 4년, 회의록이다. 하지만 나는 다 알아서 손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선생님이 지목하지 않아 주셔서 상품을 얻지는 못했다.

마지막 10분 정도는 기념 촬영 시간이었는데 투표소, 의장석 등 본회의장 내부에 있는 여러 신기한 곳을 촬영했다. 그렇게 5분 같았던 2시간이 지나고 시의회에서 나와 학교로 돌아왔다. 사회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하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

또 정치참여가 중요한 것을 알았고, 어른이 돼서 주어질 소중한 한 표를 낭비하지 않고, 자세히 살펴봐서 올바르게 표를 행사하는 미래의 나를 꼭 만나고 싶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가다

2023년 7월 초반에 우리 반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초대받았다. 우리는 더웠지만 신이 나 펄쩍펄쩍 뛰며 청소년 의회교실로 출발했다. 우리는 웅기중기 모여 이야기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만 소개하자면, 세종시의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을 가기 전에 역할을 정했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손을 안 들었더니, 의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우리는 들뜬 마음을 살포시 내려두고 시의회 안에 있는 회의실로 입장했다. 막상 들어가 보니 긴장이 되었다. 우리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두신 이름표를 찾아서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간단한 의회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어졌다.

다음 순서로는 환영사 및 홍보 영상을 보았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특강을 받았는데, 스피치 특강과 발표를 잘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발표를 조금밖에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인상 깊었다. 그다음으로는 의회 퀴즈를 했다. 특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 문제들이 나왔다. 나는 양심에 손을 얹고, 보긴 보았지만 기억하지 못했다. 의회 직원분들께서는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나는 못 받아서 아쉬웠지만 직원분들이 손수 배달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힘드시겠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으로는 모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준비한 질문들과 의견들을 발표하고, 각자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걸 괜찮다, 이걸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보았다. 우리는 의견 발표를 마친 뒤 모두 푹푹하게 웃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친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하는 시간이 왔다. 수료증이나 학습지는 원래 책상 위에 있었지만 보지 않았었다. 책상 위 올려져 있는 수료증을 열어보았다. 뭔가 상장처럼 되어있었다. 내 이름은 '김효린'인데 잘못해서 '김효림'이 되어서 나왔다.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웃기기도 했고 당황했다.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난 뒤 의장석에 올라가서 의사봉도 두드려 보고, 사진도 찍었다. 우리는 학교로 출발했다. 가면서도 더웠지만 인상 깊었고, 다신 없을 기회일지 몰라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나고 재밌던 활동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단해!

난 오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다녀왔다. 우리 학교에서 다행스럽게도 가까운 덕분에 9시 15분에 출발해서 9시 30분쯤 도착했다. 시의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와.. 비주얼부터가 장난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깔끔했다. 조금 더 들어가니 의원들의 사진이 많이 있었다. 나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는 의원들의 방도 있고 멋진 조명도 있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우와~! 입이 썩 벌어졌다. 의회 마크가 정 가운데에 딱 붙어있었다. 그리고 의장 자리는 저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의원들 책상에는 의원들 즉 친구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었다. 내 책상에 앉아 보았다. 학교 의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친구들끼리 소곤소곤 떠드는 사이에 김서원 강사가 오셨다. 우린 바로 침묵하였다. 조금은 떨렸지만, 신이 났다. 그러고는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12년 7월 1일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겼는데 이렇게 청결할 수가 있는지!! 대단했다. 지금은 2022년 6월 1일에 뽑힌 20명의 의원이 일하고 있다 하셨다. 그다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셨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만들고, 바꾸는 일을 한다. 세종시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사와 조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일이나 건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시청, 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배운 다음 스피치퀴즈를 했다. 난 계속 손을 들었지만 날 시켜주지 않았다. 그래도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니 즐거웠다. 나도 다음에 가면 발표를 더 열심히 해서 선공기와 샤프를 받고 싶다.

그다음은 발표를 잘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감, 발음, 또박또박 천천히만 한다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실전 모의 회의를 시작했다. 배운 대로 하자 배운 대로만... 점점 내 순서가 다가왔다 "박서윤 의원 나와주세요!" 순간 심장이 퍽...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고 말을 하나둘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휴, 그래도 잘한 것 같다. 나의 의자에 앉는 순간 심장이 쿵쿵쿵 뛰었다. 그래도 난 만족했다.

그렇게 모의 회의가 끝났다. 선생님이 고생했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고생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은 역시 꿀맛이었다. 그렇게 만족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갔다 왔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



이색적인 시의회 체험학습

체험학습 가는 날은 언제나 설렌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설렘었는데, 가는 장소가 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시의회여서 더욱 기대되었다. 직접 시의회를 가보니 내가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꼭 시의회가 엄숙한 곳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본회의장에서 몸풀기로 학생들 취향 저격인 밸런스 게임을 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마냥 재밌게 놀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재밌는 체험도 했지만, 중요한 것과 시의회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배웠다. 시의회를 학교에서만 배웠을 때는 살짝 이해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의회에 오니 이해가 쏙쏙 되고 더 흥미로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머리로도 이해가 되었지만, 선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마침 시의회에서 선거 체험을 해보니 선거가 좋아졌다. 또 선거의 중요성을 학교에서도 배웠으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선거를 빠짐없이 해야겠다! 아직 선거해야 할 나이가 아니니 주변 어른들이 선거를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선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선거하도록 설득해야겠다.

시의회에서 전동면 시의원인 김학서 의원님을 만났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의원님께 질문을 했다. 다들 처음이어서 그런지 얼어붙어 질문을 못 했다. 그래도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하나 하니 모두 말문이 트여서 질문을 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우리 학교 강당이 너무 낡아서 강당을 리모델링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학교 체육 시간 때 강당을 쓰면 정말 위험한 곳도 있고 많은 부분이 낡아서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친구가 그 질문을 해주니 정말 막힌 속이 땀 뚫린 것 같았다.

실제 의원님을 보니 더 멋있었고 시의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 거 같았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

그중 가장 내 기억에 남는 체험은 역시 재밌는 밸런스 게임이다. 밸런스 게임은 그냥 평상시에도 재밌는데 내가 진짜 의원이 된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하니 색다르고, 재밌는 체험이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체험은 김학서 의원님에게 하는 질문 타임이다. 평상시의 세종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이 뜻깊고 이 또한 이색적이었다.

대체로 시의회 체험학습은 이색적인 체험이 많았다. 일반적인 평소 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들 말이다. 그래서 이런 이색적인 체험이 더 맘에 들었다. 뻘한 체험 말고 직접적인 체험으로 더 시의회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 두근두근 설레는 시의회 체험학습은 다른 체험학습과 달라서 재밌고 또 교육적이었다.



청소년 의회교실

7월의 햇빛이 짙었던 날이었다. 우리 반은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체험해 보러 갔다. 회의실에 들어가 의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유인호 의원님과 이순열 의장님을 만나 청소년 의회교실을 체험했다.

첫 번째로 스피치 강의를 들었다. 스피치 강의에서는 발표를 자신감 있고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법과 발음 연습을 했다. 난 원래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발표를 잘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발음 연습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았다.

다음으로 의회에 관한 퀴즈를 풀고, 모의 본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의 본회의에서는 우리 반이 의회교실에 가기 전 준비했던 질문들을 발표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 또 찬성, 반대로 나뉘어 투표도 했다.

나는 의견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직접 의장석에 가서 의사봉도 두드려봤다. 생각보다 의장석이 높아서 신기하기도 했다.

처음 의회교실에 갈 때는 의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의회에 갔다 온 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세종시의회에 갈 때는 별로 기대되지 않았는데 막상 가니 생각보다 의회가 훨씬 커서 놀라기도 하고 신기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의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경험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 의회 모의 본회의를 했다. 학교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까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의장 자리가 가장 높았다.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 내 이름이 걸려있었다. 그곳에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다. 또 시의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나 되었다. 시의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스피치 특강을 받았다. 복식호흡부터 정확한 발음을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았다. 복식호흡으로 매일 열심히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위한 방법은 첫째, 자신감, 둘째, 정확한 발음, 셋째는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매일 매일 하면 정확한 스피치가 된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위한 문장 세 개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의회에 대한 퀴즈를 했다. 문제를 맞히면 상품이 있었다. 여섯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 문제를 맞혀서 춘식이 샤프를 받았다. 10시쯤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 싶었다. 물이 없어서 어떤 분이 방으로 들어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깐 컵이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마셨는데 애들이 다시 마셔야 해서 그것도 특별한 추억이었다.

마지막엔 모의 의회를 했는데 되게 엄숙했다. 개의하고 2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2분보다 더 넘은 것 같았다.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건의안까지 받았다. 그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것이 회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도 세종시를 위하여 회의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오늘은 언제 또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아주 특색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날이었다. 의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신기하고 세종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도 앞으로 더욱더 세종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하는 곳이라서 되게 엄숙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에 대한 부족한 점, 불편한 점, 필요한 점을 말하고 회의하여 이렇게 세종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 같다.

언젠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날지도 모른다. 정말 신기하게도 세종시에서 불편한 점이 아니라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무심코 지나가던 곳이 이렇게 세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니! 참 이롭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고!!



시의회의 흥미로운 일들

오늘 시의회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내가 모르는 일도 많았고, 엄청 흥미로운 일들도 정말 많았다. 사실은 처음 선생님이 이런 수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루한 것 같고 하기 싫은 마음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듣고 질문해 보니 모르는 일과 내가 몰랐던 다정동의 사실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좀 아쉬웠다. 만약 그 놀이터를 만든다면 그 마을에 많이 올 것 같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비록 내가 지금 들은 내용은 천분의 일도 안될 수도 있지만 재미있고 다시 이 설명을 해주시러 계속 꾸준히 와주셨으면 좋겠다. 원래는 시의회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은 의원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으시겠다는 말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의원님이 우리 초등학교 근처도, 다른 공원도, 다정동 여러 곳곳에 식물을 심으시겠다는 게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웠다. 내가 의원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 시간이 한두 교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을 어린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의원님의 이 좋은 초등강의가 중등강의, 고등강의까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그리고 다음 투표에서 형, 누나들이 한결초에 와주신 의원님 같은 분을 뽑아서 다정동을 더 멋지고, 더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커서 의원님처럼 항상 이웃을 돕고 불편한 시민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정말 후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의원님도 편하게 살 것 같다. 이 강의의 한 교시가 나의 이 글들을 만들어 냈다. 이 강의가 나에게는 정말 뜻깊고, 즐거운 강의였던 것 같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귀 기울여야...

김영현 의원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막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영현 의원은 강조했다. 누구든 쉽게 본인의 신념에 매몰되기에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론이었다. 시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시민의 필요’를 쫓아야 한다는 김영현 의원,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삶을 이롭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자 노력하는 그를 만나보자.

Q. 지방의원이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다면?

사실 오랫동안 막연하게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원래 직업이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는데,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았다. 고객님들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고,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며 보람을 많이 느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남을 돕는 일’이 정말 적성에 맞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삶을 이롭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 좋았고, 더 공적인 영역에서 그 마음을 펼쳐보고 싶었다. 그러다 세종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고, 반곡동에 지역구 의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선이라는 결실을 보며 꿈을 이루게 됐다.

Q. 초선 의원이다. 지방의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의원이 되기 전 제 눈에 비친 정치인의 모습은 오직 멋있기만 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빛나는 직업이었다.

실제로 시의원이 되고 난 후에도 시민을 만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점은 의외로 ‘용어’였다. 의원정수, 임시회, 정례회, 안건, 상정...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경해서 첫 3개월 동안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거기에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도 거의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발언도 잘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 질타하고,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늘 남아서 공부했다. 공부 덕분이기도 하고 이제는 일상적으로 듣는 단어들이 되어 어렵지는 않지만,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아직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Q.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근간에 두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쁜 짓 하지 맙시다’가 신념이다. 눈앞의 이익,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정직하지 않은 이



interview



“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익을 취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청탁한다 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다. 고민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화두로 두자’가 두 번째 신념이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계획하기보다, 시민의 일상적 불편함이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의원 제1의 업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장마나 폭설 등 불편함이 예상되는 날은 미리 상황을 알아보고, 당직실에 전화해 제설을 요청한다. 새벽에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기도 한다. 시민분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좋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개의치 말고 연락하셨으면 좋겠다.

Q.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 활동을 할 땐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여러 주제를 손대다 보니 정체성이 사라지더라. 일 년이 넘는 시점에서는 주된 관심사에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선택한 과제가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다. 지금 저에게 가장 큰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PM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어 그 부분을 타결하고 싶다.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깨달은 점은, 시민들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PM 사용을 위한 앱 가입 절차에 ‘운전면허등록’이 있음에도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무리 없이 미성년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청소년들이 두 명, 심지어 세 명까지도 한 킥보드에 타는 경우가 많으며, 인도 위에서도 위험하게 운행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 선생님이 말린다고 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신 PM 운행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현재 PM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들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님들을 모아 얼마 전 공청회도 열었다. 퇴출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성인들, 차가 없이 이동하는 분들의 이동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분들 책임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업체 차원에서 이용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저희 부모님도 소상공인이시라 그런지 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코로나 이후, 아직도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시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번 해에 처음 들어갔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 공적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활동에 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아를 포함한 응급의료, 난임부부 등 아동 대상 공적 예산은 손대지 않고, 만약 시에 재정이 있다면 증액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동마다 진행되는 작은 축제들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다.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기 위해 만든 축제의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리하게 예산을 써 연예인을 섭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은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Q.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약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층제 구조 지자체다. 하지만 구의원은 없고 광역의원만 있어서 업무에 과중이 있다. 오죽하면 우리 의회의 새로운 사자성어가 ‘주기야광’이다. 주간에는 기초 업무를

를 보고, 야간에는 광역 업무를 본다는 의미다. 혹자들은 공무원이 너무 일을 안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공무원들도 단층제 구조 속에서 너무 힘든 업무 과밀현상을 버티고 있다. 단층제를 고집할 거면 그에 상응하도록 인력도 보강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소에도 인력이 없다 보니 민원에 응대하기 급급하고, 긴급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행부가 행안부와 긴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부분인데, 강하게 요구해서 인력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시민분들께서 세종이라는 특수 도시의 구조, 그리고 그 성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세종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역민이었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새로 이주 해오신 분들은 아마 광역과 기초의 성격이 공존하는 세종의 정책이 때로는 의아하실 것이다.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다. 왜 세종시 일인데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냐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모두 열과 성을 다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기본에 충실한 시의원 될 것”

김재형 의원

탄탄한 기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의 필수 조건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본의 힘은 언제나 그 진가를 발휘한다. “스스로가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과도하게 나서서 행동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를 안일하게 가지지 않고, 작은 법과 질서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김재형 의원은 이러한 태도가 어떤 일을 바라보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본이 된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의 필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 굳건함’을 꼽은 그의 이야기를 청해봤다.

Q. 지방의원이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다면?

저는 2016년에 고운동으로 입주하며 지역 봉사 활동과 체육동호회 활동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다 보니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에 불합리한 면들이 많다고 느껴졌다. 동호회 체육관 대관이나, 동네 대중교통 소외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같은 민원 내용을 시의원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피드백이 오고, 머지않아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직접 시민과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되어볼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우연히 정당 활동을 하게 됐고, 출마, 당선까지 이어졌다. 도와주시고 선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Q. 초선 의원이다. 지방의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일반인에서 공인이 되고 나니 작은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다. 정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바로 앞 편의점에 갈 때도 허름한 운동복을 입는다든지,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는 것이 신경 쓰인달까(웃음). 친구들을 만나면 재미있을 때도 공공장소에서 목소리가 커지는지 인식하게 되고, 차가 한 대도 없는 좁은 도로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쪽을 찾아 걸으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다. 사실 그냥 한걸음에 건널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어디서든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시의원으로서 단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규범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많이 신경 쓰는 버릇이 생겼다. 공인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여기에서 오는 부담이 사소하지만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 생각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빨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의원이 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그걸 집행부에 전달하면 쉽고 빠르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제가 경험했던 민원의 해결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그때 비로소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작은 것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꾸준함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구나’라고 느꼈다. 힘들었지만 깨달음도 얻었던 순간이었다.

interview



“스스로가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과도하게 나서서 행동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를 안일하게 가지지 않고, 작은 법과 질서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Q.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근간에 두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평상시에도 항상 ‘기본에 충실해지자’라는 신념을 갖고 산다. 너무 과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업도 기초학습이 잘되어야 심화학습까지 가능한 것처럼, 생활하는 태도도 기본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가치관이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다. 저 스스로가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과도하게 나서서 행동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를 안일하게 가지지 않고, 작은 법과 질서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일을 바라보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본이 된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게는 그런 굳건한 자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Q.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다.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상임위로 행정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관광국이라는 부서가 있어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호회나 체육 관련 단체에서 봉사 활동하고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는 등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보니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문제가 많이 보였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이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잘못된, 부족한 사회적 장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배려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직시한 것이다. 아동 문제는 결국 내 아이들의 일이고, 여성 문제는 내 가족의 일이고, 노인 문제는 내가 늙어서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노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이 여유 있게 남은 생을 보낼 기반과 관련된 일이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

은 결국 노인이 된다. 그렇기에 노인 복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아울러 요즘은 종종 장애인분들의 권리중심형 일자리,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

Q.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약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먼저, 세종이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 신도심 노인은 각종 시설과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아니다. 심지어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노인은 각각 연령 차이도 있다. 신도심 노인이 비교적 젊고, 읍면지역 노인은 더 고령층이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내용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심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문화센터 등 문화적 혜택에 중점을 두고 읍면지역은 경로당 지원을 더 활성화해서 같은 연배 어르신들이 서로 벗 삼아 이야기를 나누고 여가를 보낼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종 내에서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발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데, 이런 중심부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시를 만드는 것처럼, 집행부 차원에서도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서면에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원도심이었던 조치원에는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또 세종은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새로 지은 도시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물리적 기반이 구축되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다.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니,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을 때다. 저

는 그 요소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즐길 거리를 채워야 세종 시민이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시점이다. 이 또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세종의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이라고는 하지만, 그 수입 중 대부분은 부동산 취·등록세로 인한 것이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재정자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에 대한 기반 시설과 행사들은 이런 현실에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다. 이런 메가 이벤트를 통해 세종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있고, 관람하면서 함께 즐기고, 나아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종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더불어 시민의 동의까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늘 시가 발전할 수 있고, 시민분들이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하는 일을 함께 신뢰해 주시고, 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두고 늘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의회와 시민들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편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모두가 소통으로 하나 될 때 행복한, 윤택한 세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응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성취대_{小聲取大}의 정치를 꿈꾸다

김현미 의원

‘소성취대_{小聲取大}’,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김현미 의원은 이 사자성어를 본인의 신념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소리를 내도 들어주는 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 김 의원의 바람이다. 그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자랐을 때 당당히 이어줄 수 있는 사회를 기반부터 하나씩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삶의 구간을 세 개로 나눠 체육 전문가에서 엄마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김현미 의원, 그 이야기 중 세 번째 장을 펼쳐본다.

Q. 지방의원이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다면?

정치에 입문하기 전 15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일을 하며 여성문제, 정신건강, 건강복지 등의 이슈에 관심이 생겼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13년 정도는 군부대 내 부적응 병사들을 상담했는데, 그러다 보니 관심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후 세종시에 와서 성과평가, 인사평가, 인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는데, 체육 분야 인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의원이 되고자 결심했다. 그 조직에서 내부의 정치적인 영향력들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본인이 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그 부당함에 울분을 토하니 선배님들께서 울분만 토하지 말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곳으로 직접 가보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Q. 초선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의정활동에서 힘들었다기보다 정치적·정책적 현실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할까.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난 1년 6개월간 제가 느낀 바이며, 또 개선해야 할 바다. 사실 시의원은 출마 시기부터 해당 지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공약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만들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 하지만 막상 지방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며 재선을 위한 공약을 세우고, 그것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는 의원들의 모습을 마주하니 답답함을 느꼈다.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평가에만 집착해 성실함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은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권한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써야 하는 사람이다. 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한다.

Q.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근간에 두는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소성취대小聲取大를 목표로 삼았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소리를 내도 들어주는 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래서인지 의정활동을 할 때도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 그리고 아동학대 등의 분

interview



“

‘소성취대小聲取大’,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김현미 의원은 이 사자성어를 본인의 신념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할 때도 나름의 철칙이 있다. 바로 “내 동네보다 세종시를 우선으로 본다”라는 신념이다. 저희는 기초가 아닌 광역의원이다. 기초의 역할까지 병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워지고 있는 도시 세종에서 의원들은 ‘지역구’라는 근시안보다 ‘지역 전체’라는 원시안을 가져야 한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많은 도시다. 세종시가 유기적으로 구축되려면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전체를 보며 채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지역구에만 좋은 것을 세워야지’라는 편피현상에 매몰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시의원 모두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Q.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세종시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다. 자족도시의 기능 가운데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 중 하나가 공공의료 분야다. 현재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세종형 정신건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소아 건강원 확보 차원에서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해서 다양한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의 운영,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경력보유 여성에 관한 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더불어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도 모색하는 중이다.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다. 그만큼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

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 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 결과 활용 의무화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Q. 세종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세종은 현재 도시 성장과 변화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시의 경쟁력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여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격동적인 전환기에 시민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예측가능한 정치로 시정을 살펴야 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에서 제출한 예산서에는 사업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 공공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재정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지방비 부담액이 2030년까지 최소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계획에 없는 체육시설이나 인프라 등의 구축에 소비하는 무분별한 예산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을 통합 및 폐지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 예방을 위한 법치 행정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 및 공공시설 건립 시 적정 수요를 예측하고 운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잦은 인사이동으로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의 방향을 잃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사이동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인력은 적고 사업은 많은 세종의 특성상 사업의 성패는 행정인력 한 명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구조와 체계에서 결정된다. 이런 환경에서 업무의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인사이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까닭은 시민들을 대변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올바른 정책으로 구현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야 하며, 집행하기까지 그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시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결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의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출된 안전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며,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건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自淨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부족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며 한발 한발 신중하고 낮게 내딛고자 한다. 세종시민 여러분도 여·야의 구분이 아닌 시각의 다양성으로 세종의 미래를 고민할 제4대 의회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청렴의 의무를 준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상임위원회 소식

47

의회운영위원회

49

행정복지위원회

51

산업건설위원회

53

교육안전위원회

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제86회 정례회 제2차, 3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023년 11월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 대비 2억 2,110만 원 증액해 원안가결하고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어 2023년 11월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운영위가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억 6천4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 원을 증액한 106억 6천7백만 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2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5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2023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최종 승인했다. 연구모임은 지난달 말 연구를 종료하고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물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 및 활동비정산서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심사에서 대표 의원들은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의회운영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심사를 통해 5개 연구모임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의 적합성, 정책제안의 타당성, 시책반영의 가능성 등에서 부합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추진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준 높은 개선안을 도출해 시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어진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진 위원



최원석 위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3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시정에 대한 면밀한 질의도 이어졌으며, 이후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세종시가 쟁겨나가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본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86회 정례회 안건 심의 시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어 2023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400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안 중 일부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같은 달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908억 6,252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59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 원을 감액하고, 70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같은 달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개최되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행정복지위원회는 2024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그동안 정원에 반영되지 않던 조직을 신설한다던가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



상병현 위원



윤지성 위원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6,789억 4,434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8개 사업에서 81억 672만 원을 감액하고, 60개 사업에서 74억 3,772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산업건설위에서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한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 ▲공용자전거 구입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실태조사·정밀진단 ▲농가 경영 안전 직불금 및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 등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건축 재정 기조로 사업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밤낮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산업건설위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6-3생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긴급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3생활권(H2, H3)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2024년 1월 10일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및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 및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하자 및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지성 위원은 같은 달 9일 특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작년 해밀동 입주 아파트 하자 갈등 및 해결방안 등과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 등 24건 심사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4년 1월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아울러 이 중 2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시민의 안전 및 편리한 삶과 직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 정책에 바로 적용하는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2024년 2월 5일에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2024년 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와 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영기)를 방문하여 영재학교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전에 방문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는 학교의 역점 및 특색사업 등 학교현황, 교육과정 전반과 최근의 수상실적*을 보고·청취 하였으며, 학교 융합창작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2023년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 수상

이어 위원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살펴보고 센터의 기능과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또 행동중재지원단 운영과, 장애인에 술단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살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학생의 장래 희망 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진로와 진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개설과 홍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24년도 조례안 등 20건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어 2024년 1월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결과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정비되고 마련된 조례안이 학생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도움으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1형 당뇨 환우 학생 지원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15시에 세종 관내 1형 당뇨 환우 학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수행과 건강증진협의체 구성을 당부하고 제도적 환경조성을 촉구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1형 당뇨 성인 환자에 대한 지원 등 시청의 적극적 개입과 변화한 입장을 촉구했으며, 중앙부처, 세종시, 교육청, 시의회 차원의 협력적 소통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우 학생과 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을 당부하는 등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



김광운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여미진 위원



유인호 위원



최원석 위원



2024년도 예산안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세종시 2024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2조 28억 원에 비해 968억 원(▲4.83%)이 줄어든 1조 9,06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대규모 사업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요구된 예산이 과다 계상됐는지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홍보용품 구입 등 85개 사업에서 106억 523만 원을 감액하고, 공보관 소관 시정소식지 발간 등 153개 사업에 106억 523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당초 계획 대비 2,466억 원(▲49.26.2%) 감소한 2,539억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전략적인 재정 운용과 의회·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3년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됐다.



5분 자유 발언

57

제86회 정례회 본회의

59

제87회 임시회 본회의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대중교통 월 정액권 오류…교통안전·환경 예산 확대해야

박란희 의원은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으며, 정책 대안으로는 방음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2년 8월 세종시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이며,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미루고 인기에 영향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내년(2024)보다 내후년(2025)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행정·연구 전문인력DB 구축으로 시정 혁신 이끌어내야

김현옥 의원은 “행정·연구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특성상 행정 및 연구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 비율이 높으므로 은퇴한 전문가들이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종시 전문가 DB’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시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손쉽게 찾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은퇴한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지역에 공헌할 기회를 얻게 되어 세종시에서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전문인력DB 기반의 사회공헌시스템 구축은 세종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전문가들에게는 정책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와 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안신일 의원
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BRT 자전거대회로 대한민국 넘어 세계 속의 세종시 만들자

안신일 의원은 “BRT 자전거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세종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해 세종 시대가 열릴 것이며, 이제 세종은 세계 속의 도시가 되어야 하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위상에 더해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전거대회 개최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로 ▲경기 모습을 중계해 자연스럽게 국내외로 세종 명소 홍보 ▲선수, 자전거 애호가, 국내외 공공자전거 보유 지자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대회 개최로 친환경 자전거 도시 위상 제고 ▲전시 및 체험, 자전거 정책 및 관련 산업 소개가 가능한 홍보관 운영으로 경제적 성과 도출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자부심 증대 ▲학교 사이클부 창단 등 유망주 발굴·육성의 계기 마련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창의력 넘치는 적극 행정으로 BRT 자전거대회를 열어 세종시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더욱 강화해야

여미전 의원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신건강 선도도시 세종의 실현을 위해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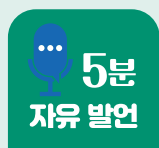
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세종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자 수는 321명에 달하며, 상담 건수는 2,318건에 육박한다. 아울러 2022년 대비 정신건강 위기 개입 건수는 25.8%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응급출동 건수는 무려 18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근거 조례 제정 ▲지역 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의 열악한 처우 정상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청년들이 떠나는 ‘젊은도시’ 세종

최원석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는 젊은 도시 세종의 청년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인구 중 4·50대 비율이 33%로 가장 많았고, 2·30대 청년층은 26%이며, 2017년 이후 그 비율이 점차 줄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2·30대 순유입은 4,400여 명으로 2015년 대비 23%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도 저조해 30대는 전국 평균치를 약간 웃돌지만, 20대는 약 50%로 광역시도 중 최하위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과연 세종시가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기에도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가 ‘젊은 도시’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며 형식적인 청년정책을 반복한다면 10년, 20년 후 지역의 청년층이 더욱 줄어들 것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추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률 제고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세종시 청년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완화를 제언했다.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하자!

김재형 의원은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2024년 신년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 스포츠, 휴양 등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를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행복청 발표를 환영하며 “기존에 추진했던 예술인마을 조성 재추진과 함께 한글문화단지를 포함하여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복청, 세종시는 물론이고 시의회, 주민 대표, 지역예술인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고운동 유보지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가 세종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처럼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세종시의회가 신년 화두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정한 취지를 설명하며 “집행부와 행복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귀를 열어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함께 하는 공동체 세종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김충식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6만 7,149명에 달하며, 세종시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에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 강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제공을 제안했다.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시 재정위기 극복해야

김현미 의원은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응급의료·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축소하고 감사 지적 사업에는 예년 수준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예산 미반영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중단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 준수와 재정 운영의 효율,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벌써 본예산 반영 사업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제라도 본예산 운영과 추경 편성의 건전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대 노력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방지 대책 수립 ▲예산편성 전 사전 검토 및 편성 후 재정관리 철저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 개최 시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4년,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김효숙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이 이음다리, 호수공원, 중앙공원과 더불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며,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장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예술의전당, 어린이박물관 등 지리·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할 만한 요소가 충분함에도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개최지로 도시상징광장은 계속 제외되었다며, 지금이라도 광장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 지금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가 도시상징광장이 세종의 중심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며, 세종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장의 보행연계성 개선을 위한 ‘예술보행교 설치’ ▲몇 년째 같은 영상이 반복 송출되고 있는 미디어큐브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미디어 파사드 트리 활용 등)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광장의 계절별 행사 기획을 제언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시 증가하는 범죄율… 대안은?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2020년도부터 인구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 의원은 “관내 긴급코드별 112신고 접수 건수가 2021년 약 5만 3천여 건에서 2023년 5만 8천여 건으로 약 4천 8백여 건이 증가했다. 또한 경찰에서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코드 C0와 C1을 합한 신고 건수도 2년 만에 3,401건이 증가했다”고 전하며 지역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최근 범죄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담긴 세종시 법 개정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 시민 거버넌스와의 적극적인 연대 구축 ▲범죄 통계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경찰-시청-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폭력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자제” 촉구 나서…



김영현 의원
반곡동,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은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역 추진의 사전절차인 용역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의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전하며 “또한 집행부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만에 바꾸는 등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으며, 더욱이 2천만 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의 계약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사후 평가 진행 및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와 시에서 쌀 소비 감소 해결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장려금을 통해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수작업과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한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략작물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작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수제(자갈)충진, 되메우기, 무굴착 속도랑 배수 등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전략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을 제안했다.



상병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

상병헌 의원은 조치원 철로 지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도시가 변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망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국회는 2024년 1월 9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될 경우 규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철로 지하화가 가능하게 된다.

상 의원은 조치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조치원읍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며, “이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 이면에 가려져 있던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시정질문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청심정행(淸心正行)자세로 행정의 기본을 지켜야...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대회 유치 확정 이후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점에 대하여 시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10월 캐나다 국제기구인 CIB(Community in blooms)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구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점과 CIB 평가서에서는 인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라고 한 점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이미 이 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점을 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의 기본인 청심정행(淸心正行)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날씨와 개화 시기를 고려해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데,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두 달 앞두고 대형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시정질문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시, 크린넷…돈 먹는 하마?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되었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에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김미랑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세종시의회로 1년간 파견 온 김미랑입니다. 제가 세종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된 지역으로, 세종시의회로 파견 온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근무는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국회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 의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업무 경험은 국회 복귀 후에도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세종시 주민으로서 세종시의회 직원으로서 초보자인 저를 파견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일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 수석전문위원으로 2024년 1월 1일에 전입해 온 이은일입니다. 의회에서 일해보는 것은 처음으로, 의회 업무도 경험하고 의원님과 소통하고자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과 자주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우리 시 및 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내는 동안 시의원님과 직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웃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안녕하세요. 세종시 관광진흥과에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실로 전입 온 김재우입니다. 과거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때 국회 협력관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국회-집행부와 소통을 추진한 적 있으며, 세종시로 전입 온 후로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의회와 협조하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이 소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의회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의회 전입 공고문이 올라와 바로 지원하였고, 지원자 중 제가 전입을 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집행부 견제, 지방의회 위상 강화, 집행부-의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선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김지선입니다. 2020년도에 세종으로 전입하여 시에서만 3년 정도 근무하였고, 이번에 의회에 오면서 의회 업무는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대응 업무만 해봤지, 의회 업무를 직접 해본 건 처음이라 사실 아직도 업무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받은 만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세종시의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희순

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 입법지원팀으로 파견 발령 받은 양희순입니다. 파견도 처음이고 의회 업무도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의회에서의 업무 경험은 법제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던 업무를 하게 되어 의회에서의 근무가 저에게는 큰 행운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맡은 업무 하나하나를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의회에서도 보탬이 되는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구민 주무관입니다.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수많은 조례가 탄생하는 곳, 도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며 예산을 심사·승인하는 곳, 검은 손을 견제하며 청렴한 지방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따끔한 조언도 마다하지 않는 이곳, 의회가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궁금증도 해소되고 직무에 대한 경험이 쌓여 사무역량도 강화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꾸준한 성실함으로 전문성을 키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의회와 시청이 협치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

반갑습니다.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의회 인사팀으로 전입을 온 이상호입니다. 옆에 늘 함께 있지만 불편한 이웃 같았던 지방의회에 지원해서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의회 직원이 되어보니, 그 불편했던 모습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모습으로 새로이 보였습니다. 지난 설 연휴 전에 같이 대평시장에서 장보기를 할 때는 어렵기만 했던 의원님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동네 주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모 의원님이 집에 가져갈 대파와 직원이 산 대파를 양손에 들고 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모쪼록 저도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을 거두고, 세종시민을 위한 활동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병민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9일자로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 전입을 온 최병민입니다. 의회는 시민과 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 나가는 곳이기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제 새로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생소하지만, 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종시의회 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의정 주요 뉴스



2024.01.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년 1월 5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2024년 1월 1일자로 위촉된 입법고문·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자문만족도가 우수한 입법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제2조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재위촉된 입법고문은 조용호(前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신성임(법무법인 태앤규)이며, 두 명 모두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순열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 해결 등 쟁점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향 도출을 위해 식견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02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024년 2월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화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의정 주요 뉴스



2024.02.05



세종시의회,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년 2월 5일 갑진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제1부 의장, 김충식 제2부 의장은 전의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인 세종빌을 시작으로 전동면 중증장애인 시설인 노아의 집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금이성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시설 입소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순열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2024.02.05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24년 2월 5일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법원 설치와 KTX 세종역 신설 및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유관기관과 충청권 공조 강화로 미래전략수도 완성 여론조성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에 위한 활동 성과 등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도 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올 한해는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 때문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법원 설치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정 주요 뉴스



2024.02.05



세종시의회,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

2024년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는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 고(故)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제87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이후 세종시 정부청사 소방청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제1부위원장, 김충식 제2부위원장 및 의원 일동과 사무처 직원들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조문에 동참했다.

이순열 의장은 조문을 마친 뒤 “화재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든 용감한 소방관들을 잃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 안전 강화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세종시의회, 새해 첫 ‘문화가 있는 날’ 추진

2024년 2월 6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의 장욱진 회고전을 관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대미술사에서 한국적 추상화를 확립한 거장 장욱진 화백은 세종시 연동면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 화단에서 이 중섭, 김환기, 박수근, 유영백 등과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2세대 서양화가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 화백이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 대표 화백인 장욱진 화백의 회고전을 찾아 수준 높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의회 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주요 뉴스



2024.02.08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는 설 연휴를 앞둔 2024년 2월 7~8일 양일간 금남면 세종대평시장과 조치원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김충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직원 일동은 7일 금남 세종대평시장을, 8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만나 덕담을 나눴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 명절에 필요한 차례 용품을 구매하는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현장 물가를 체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이순열 의장은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분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해 시장 상권을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2024.02.13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김재형 위원장 선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제1차 회의를 2024년 2월 13일 개최하고, 김재형 의원과 김효숙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위원) 김재형, 김효숙, 김영현, 이현정, 최원석
김재형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계획을 논의하여 채택할 전망이며, 세종시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집행부 보고·청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 주요 뉴스



2024.02.16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2024년 2월 16일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 개최 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부모님의 자식 자랑

유용학(해밀동)

“앗차차....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깜빡 잊었네”

아내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부리나케 전화를 겁니다. 친정엄마, 즉 장군면 고향마을에 사시는 장모님께 말입니다. 장모님은 가끔 아내더러 “며칠 몇 시쯤에 전화 좀 넣어라”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부모 자식 간에 사전 전화 통화 예약 서비스(?)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전화 ‘주문과 발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더러 전화를 넣으라고 예약을 거는 시간은 대략 낮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마을회관에 가는 시간인데 그곳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 둘러앉아 도시에 나가 사는 자식과 손자 자랑을 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버네, 우리 며느리 이번에 승진했네, 우리 딸 이번에 미국 갔다 왔다네, 우리 손주 대기업 취직했네 등등.... 우리네 어머님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자식 자랑 레퍼토리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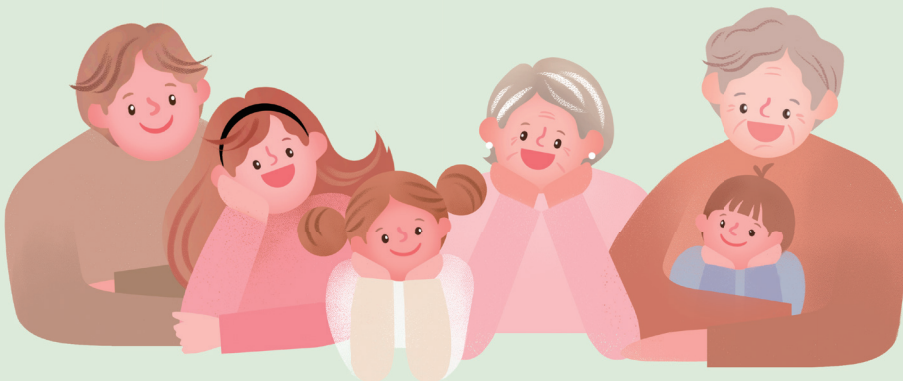
오늘도 마을회관에서 점심 후 모두가 모인 시간에 장모님은 보란 듯이 “내 아들딸도 잘나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을회관에 동네 어르신들이 다 듣는 가운데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치듯 통화하시는 시골 어르신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내가 사전에 약속돼 있던 시간에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전화기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유 서방 직장 잘 땡기고? 아그들도 잘 크냐? 니덜이 지난번에 사서 보내준 한우 사골찌는 잘 끓여 먹었다. 뭘 맨날 그런걸 사서 보내냐. 큰아(당신의 큰아들)는 요번에 푸랑순가(프랑스) 어디 갔다 왔다더라... 작은아(둘째 아들)는 회사에서 뽀나스를 받았따고?...”

하시며 구구절절 자식 자랑을 하시던 레퍼토리.... 사실 별 볼 일 없고 다들 평범하게 사는 자식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게 하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듯합니다. 우리 부모님네들의 그런 자식 자랑은 하나도 팔불출 같지 않습니다. 그제 지금껏 헌신적으로 자식 키워주신 뒤에 느끼는 유일한 낙이자 기쁨이고 희망이니까요. 늘그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의 영양보충제이기도 합니다.

장모님의 그런 자랑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늘 자식 잘되기만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님의 편지글에 감동의 물결이...

이순애(도담동)

“에미 보거라”로 시작된 어머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편지. 맞춤법도 거의 신경 안 쓰신(?) 그 편지글은 그냥 감동이 었다. 내용은 구구절절 아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것이 전부여서 며느리로서 읽어 내려가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얼마 전 남편이 회사에서 준 보너스라며 눈먼(?) 돈을 받아왔기에 기왕이면 좋은데 쓰자고 해서 시부모님 두 분께 찾 아가 정기건강검진 받아보시라고 드렸던 것에 대한 고맙다는 말씀과 이런저런 글이었다. 맞춤법 무시한 원문을 그 대로 실어 보자면...

“동내 핵교에서 마을 잔치를 했는데 우리 노친네덜 행운 주첨을(추첨을) 시작했는데 나는 <장춘희>라고 불리 니 깜작 놀랬다. 얼릉 떠갔더니 100억 맞으라고 롯데(로또) 복권 3장 주더라”

라며 며칠 전 고향 행사를 적으셨다. 아마도 100억 당첨은 안 되신 것 같고 ㅎㅎ 두 분은 조치원에서 농사지으시며 6 남매를 키우셨다. 그중 넷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내가 시집갈 때부터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시며 극진 히 잘해주신 시부모님. 나는 너무 행복했다. 이어지는 어머님의 편지글을 잘 정리해서 옮겨 보면 이렇다.

“마을 잔치를 다녀오니 너희가 주선했 준 효도 종합검진 결과가 와 있더구나. 마음 같으면야 온 동네에 자랑하 고 다른 아들딸들에게도 너희들 자랑하고 싶지만, 부모에게 종합검진을 해드리고 싶어도 살림이 여의치 못해 서 그렇게 못하는 다른 아들딸들이 민망해할까봐 너희 들의 효심을 조금밖에 자랑하지 못했단다. 검진 결과 특 별히 나쁜 곳은 없고, 나는 노인들에게 많은 골다공증 정도여서 다행스러웠단다. 그리고 뇌 아버지 금연한다니 까 믿어보자꾸나. 너희들 6남매가 모나지 않고 자기들 일 성실히 하며 살아가니 곳곳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구나. 이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여 나는 매일 고맙다는 생각을 하며 산다. 고맙구나 메늘에기야”

이렇게 끝을 맺은 당신의 편지. 모르긴 해도 한나절은 쓰셨을 법한 장문의 글, 자식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지켜내시 려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난다. 효도하고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그럴 수 없는 다른 아들딸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 까지.... 일전에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의 훈장을 받은 분 중에 결혼 후 홀시할머니와 홀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키워낸 효부가 계셨다.

이분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식당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매일 세 끼 죽을 쑤어 떠먹여 드리고, 목욕을 시 키는 등 지극정성으로 수발했다고 한다. 또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아들이 30번의 수술 끝에 건강한 청년이 되기까지 각고의 정성을 기울였다. 나는 거기에 비해 발톱의 때만큼도 효도를 못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다니.... 나도 나중에 며느리 보면 이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입법정보

78

I 생활법령

82

II 주요입법동향

86

III 법령해석사례

88

IV 최근시행법령

89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I 생활법령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모르고 썼는데도 부당이득이라고요?

사례 01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① 치열

당연히 반환해야죠! 과거에 내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2016년 이후에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봐야죠.

② 행선

저는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생교육원을 인수한 거라고요. 고의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모르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한테까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A업체에 납품한 치열씨.

그런데 콘텐츠를 납품받은 A업체의 직원인, 치열씨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B사립대학 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B대학은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제작해 2014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했고, 2016년 행선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육원의 영업을 넘기게 되었죠.

뒤늦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치열씨. 자신이 사적으로 열심히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인 행선씨를 상대로 2016년 이후의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행선씨는 치열씨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까요?

정답은 ①번.

치열 : “당연히 반환해야죠! 과거에 내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양수한 2016년 이후에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봐야죠”입니다.

위 사례는 무단 복제된 저작물을 이용한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및 그 반환범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나. 저작물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다. 위 판결은 저작권 무단이용에 관해서는 선의·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행선씨는 치열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❶ 평결일 : 2023년 12월 16일

참조판례 : 손해배상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사례 02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① 오개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속임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적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 나직원씨가 신청사유나 제출서류를 가볍게 믿고 부실한 심사를 하였다는 원인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나직원

어쨌든 오개설씨는 거짓된 정보를 저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진실한 정보가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은 것뿐입니다. 저희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신청한 것이었고, OO은행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에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개설씨가 제출한 서류 중 예금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는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 또는 '통장개설'이라고 적었고,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등) 양도 의사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법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단순 증명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나직원씨는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오개설씨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오개설씨의 행위는 OO은행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①번.

오개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속임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적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 나직원씨가 신청사유나 제출서류를 가볍게 믿고 부실한 심사를 하였다는 원인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오개설의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나. 신청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오개설씨의 요청대로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오개설씨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계좌개설 신청자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가 개설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은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❶ 평결일 : 2024년 2월 1일

참조판례 : 업무방해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주요입법동향

01

최근공포법령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공포 '24. 1. 2. / 법률 제19871호)

-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24. 1. 23. / 법률 제20074호)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4. 1. 23. / 법률 제20090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대상에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공포 '24. 2. 13. / 법률 제20252호)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5제2항),
-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 하고(안 4조의8 신설 등),
-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안 제6조 제2항),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의 2 신설 및 안 제11조제2항 등).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03

최근 국회 접수 법안(주요법안)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등 12인)

-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등 10인)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04

최근입법예고(주요법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의견제출 '24. 2. 22. 까지)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의견제출 '24. 2. 24. 까지)

-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의견제출 '24. 2. 28. 까지)

-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 그런데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

III 법령해석사례

질의(법제처-24-0003 / 회신일자 '24. 2. 14.)

사례 01

- ①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제4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회답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유

- 먼저 구급차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구급차 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급차 등의 운용 주체에 따라 구급차 등의 사용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의 문언상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료용 장비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 장애환자의 이송(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호) 등의 한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등 구급차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또는 의료자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구급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 역시 ‘응급환자 이송’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용도로도 구급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따라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써,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IV 최근시행법령

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4. 1. 1. 시행)

-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3. 1. 25. 시행)

-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03

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 '24. 2. 6. 시행)

-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저장·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보고 사항 및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4

여권법(일부개정, '24. 2. 9. 시행)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1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

[제정, 시행 '24. 2. 15.]

제안 이유

경상남도 의원당선인의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의원당선인 및 의정연수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의정연수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의정연수의 진행 방식 및 협력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02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4. 2. 15.]

제안 이유

김해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보육교직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보육교직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다. 보육교직원의 지원사업과 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03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시행 '24. 2. 15.]

제안 이유

각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앴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 가. 시책일몰제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시책일몰제의 권고 및 대상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다. 시책일몰제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V 라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4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4. 2. 16.]

제안 이유

기업, 연구기관이 확보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실증 테스트베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과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다. 실증 테스트베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위원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0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4. 2. 16.]

제안 이유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2023년 11월 17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새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갈수록 디지털 재난 발생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도민의 디지털재난 사고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디지털재난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디지털재난의 도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
- 다. 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4. 2. 16.]

제안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4조)
-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장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제8조)



세종시의회 2024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7회 임시회 : 1.24. ~ 2.05.(13일)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 ※ **신청 : 1.1.**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 **설 연휴 : 2.9.~2.12**

3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 제88회 임시회 : 3.5. ~ 3.21.(17일)
- 시정질문,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 ※ **삼일절 : 3.1.**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4월 초 예정)
- ※ **참고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4.12~5.1)**
- ※ **식목일 : 4.5**
- ※ **국회의원 선거 : 4.10.**

5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9회 제1차 정례회 : 5.20. ~ 6.21.(33일)
-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 ※ **어린이날 : 5.5./5.6.(대체휴일)**
- ※ **석가탄신일 : 5.15.**
- ※ **현충일 : 6.6.**

6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 본회의 예정일 ■ 상임위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223217463608>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계간 <세중의정>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계간 <세중의정>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을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 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층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홍보기획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044.300.7248 팩 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중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접속→홍보관→의회간행물→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 입법정보

계간 **세중**
의정

[불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